

환경관리인은 贖罪羊이 아니다!



朴昌根

〈(社) 環境教育會 위원장〉

1. 汚染者 구속

지난 7월 15일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公害를 배출한 汚染者를 구속해 公害犯罪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즉,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15일 허용 기준치를 3배나 초과하는 크롬·구리·납 등 중금속 폐수를 흘려보낸 제일공업사 대표 金安圭씨(45) 등 3명을 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기준치 이상의 폐수를 방류한 아주약품 대표 金중길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표가 구속된 제일공업사는 지난 4월부터 공장에서 폐수처리기의 모터가 고장나 가동치 않는데도 이를 그대로 방치, 중금속 구리는 1당 허용 기준치(3mg)의 2.8배인

11.17mg, 크롬(허용 기준치 2mg)은 2.6배인 7.17mg, 납(허용기준치 1mg)은 1.5배인 1.45mg을 배출했다는 것이다.

업주 金海一씨(62)가 구속되고 공장장 史圭東씨(45)가 불구속 입건된 자동차 정비업소인 서울 永登浦洞 5街 53의 2 영일보령공업사는 지난해 5월 폐수처리기를 설치하고도 이를 가동치 않고 직접 하수구로 연결되는 비밀 배출구로 폐수를 방류한 혐의다.

폐수처리 시설 관리인 朴雲錫씨(27)가 구속된 도금업체인 서울 楊坪洞 2街 35의 1 금호방청공업사는 지난해 12월부터 폐수처리기를 정상적으로 가동치 않아 크롬과 구리는 허용 기준치의 2배가 넘는 양을 방류했다는 것이다. (7월 15일자 중앙일보)



2. 公害犯罪 엄단

최근, 公害 문제가 단순한(?) 環境汚染의 차원에서 분명한 國家 파괴 요인으로 認識되자 公害犯罪에 대한 처벌이 強化되기 시작했다.

즉,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값싼 몇푼의 罰金으로 公害를 다스리던 것을 汚染者를 입건, 구속하는 강경한 대책으로 公害를 막게 되었다.

한마디로 公害防止와 対策을 위해서 바람직한 處事다. 그렇지않아도 公害防止 対策이 미온적이어서 公害를 근본적으로 뿌리뽑지 못했던 현실로 보아 이번의 실질적이며 적극적인 처벌대책은 그동안 環境에 대하여 眼下無人이었던 일부 악덕 公害排出業者들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사실, 그동안 公害犯罪에 대한 처벌은 有名無實했다. 오히려 汚染을 조장한 듯한 非 현실적 罰金 처분으로, 排出施設을 해놓기 보다는 몇푼의 罰金을 내는 편이 더 利益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많았다.

全國民의 共有財며 國家의 公共資産인 공기와 물을 이용하고, 다시 그대로 깨끗이 환원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事業主의 營利를 위해 쓰고 버리는 공기와 물 정도로 여겨, 그동안 우리의 공기와 물은 汚染될대로 汚染되어 있었다.

특히, 成長위주의 國家 경제 정책에 부응한다는 當爲性(?)이 汚染者들에겐 일말의 양심도 남겨주지 않았으며, 일반은 그것을 당연시해 왔다. 그래서 輸出 목표액 달성 때문에, X X 때문에 등의 핑계로 汚染을 막기에 게을리해 왔으며, 그에 대한 法的조치도 눈 감고 아용하는 식의 소극적이며, 미온적인 것이었다.

마땅히 汚染者가 그 汚染을 막아야 되고,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그동안 그렇지 못해 왔다가 때 늦게... 그러나 다행히 이제 그 대책이 현실화 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汚染者 구속에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汚染者를 처벌하는데, 汚染者가 아닌 汚染을 막는 사람까지 처벌한 것이 그것이다.

즉, 事業主와 함께 環境管理人도 구속한 것이다.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억울한 處事다. 環境管理人을 贖罪羊으로 평가한 모양인데 결코 環境管理人은 贖罪羊이 아니다.

왜? 이런 경우가 되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環境保全法에 그 이유의 터무니를 두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그 터무니는 정말 잘못된 터무니로 바로잡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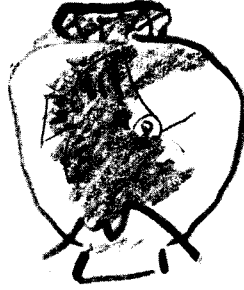
물론, 雙罰罪의 범주에서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雙罰罪도 유분수지 共犯 관계이기는 커녕, 加害者와 対策者를 하나로 싸 묶어 처벌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環境管理人뿐만 아니라, 環境교수, 環境공무원 등 모든 環境인도 함께 구속되어야 한다는 論理가 된다.

물론 環境管理人이 業務에 태만해 汚染을 排出했다면, 마땅히 處罰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세상 어디에 環境管理人이 業務에 태만해 汚染을 排出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 環境管理人이 處理藥을 떼어 먹고, 전기료가 아까워 모터틀 돌리지 않는단 말인가? 그럴수가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생각이다.

事業主야 藥값 전기료가 아까워 어물어물할 수는 있다. 그러나 環境管理人은 그럴 필요



가 없다. 그런 環境管理人을 事業主와 함께 都賣金으로 넘긴다는 것은 아무래도다!

솔직히 말해, 環境관리인은 어디에서나 푸대접을 받고 있다. 公害防止·對策에 대한 의식이 확립되어 있지 못해 事業主들은 環境관리인을 억지로 고용한 存在, 事業을 감시하는(?) 存在, 公害문제를 위해 끼워 넣은 장식품 정도로 여겨 環境관리인은 1년이 되건, 10년이 되건 萬年 環境관리人이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순조로운 승진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職場에서는 천덕꾸러기로 의기 소침해 있는데, 事業主의 贖罪羊 노릇을 하도록 강요 당하는 현실 法은 분명 모순이다.

3. 贖罪羊이 된 環境管理人

이번의 검찰 처벌에 있어 우리들 環境人들을 당황하게 만든 雙罰이 아니라 事業主는 불구속 입건 되고 오히려 環境관리人이 구속된 「금호방청공업사」의 경우이다.

구속된 環境관리人은 27세의 朴雲錫 수질 2급 기사다. 朴 관리인은 지난해('85년) 12월 봉급 25만원을 받기로 하고, 「금호방청」에 入社했다. 첫 직장인데다가 環境을 지킨다는 긍지와 사명감에 열심히 일해왔다.

그래서 사건이 터진 후에도 책임을 회사나 事業主에게 전가하지 않고, 일단 廢水排出의 책임을 自認해 구속된 것이다. 당연히 회사에서 자신의 無罪와 뒷 마무리를 해 줄 것으로 믿은 것이다. 그러나 끝내 구속되어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되기에 이르렀다. 아무도 朴 관리인을 위해 힘쓰려 하지 않았다. 회사측에서는 모든 잘못은 管理人에게 있다는 얘기고, 事業主는 다만 종업원에 대한 도의적인 입장에서 잘 되도록

록 노력해 보겠다는 정도다.

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朴 관리인의 형과 누님도 혹시 회사측으로부터 不利益을 당할까 보아,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도 朴 관리인의 구속에 적극적인 대책(?)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마치 당연한 일 같이 “강 건너 불구경” 식이다. 다행히 全國環境管理人 聯合會의 이 용운 회장이 영등포 구치소로 달려가 朴 관리인을 면회하고 변호사도 만나 보고 筆者에게 달려 왔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안타까워서 안절부절이다. 事業主도 가족도 적극적이지 못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2백만원은 있어야 되고...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고 한숨만 푹푹 내리 쉰다.

筆者인들 뵈족한 수가 있을리 없다. 아직 검찰의 수사 과정이니 이렇다, 저렇다 따질 게 개도 아니고 그렇다고 변호사를 선임할 2백만원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이다. 朴 관리인을 위해서 筆者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이다.

環境人이여!

따져 볼 일이다! 公害處罰에 있어 과연 事業主와 環境관리人이 함께 處罰받아야 하는지? 그래야만 한다면, 環境관리人의 처우는 그럴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그 權益은 더욱 強化되어야 한다.

따져 볼 일이다! 環境관리人이 贖罪羊이 되었는데도 모두들 꿀 먹은 벼어리인양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 현실을...

따져 볼 일이다! 단돈 2백만원도 없어 環境人을 위한 公式 해명도 못하는 이 처지를...

環境人이여!

우리들 자신을 위해, 우리들 環境人에 대하여 관심을 갖자!